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극단여정  
모퉁이극장  
문화소통연대이야기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바투아트  
미디어교육연구소  
세상과 소통하기  
정미숙 무용단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이주민문화센터  
평심마을문화원  
햇빛연극단  
햇살나무도서관  
도시건축재생연구소 건전지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 4 사업 소개
- 10 경상권 연수
- 13 언론보도현황

## 16개 운영단체 프로그램 소개

- 14 극단여정
- 18 모퉁이극장
- 22 문화소통연대이야기
- 24 문화예술교육연구소
- 27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 30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 33 바투아트
- 36 미디어교육연구소
- 39 세상과 소통하기
- 42 정미숙 무용단
- 45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 48 이주민문화센터
- 52 평심마을문화원
- 55 햇빛연극단
- 58 햇살나무도서관
- 61 도시건축재생연구소 건전지

## 참여자 설문조사

- 64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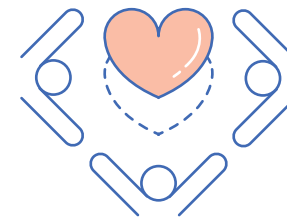
- 68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이슈
-

# 1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 1. 사업 소개

#### 사업목표



#####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 의식적인 예술교육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체의 지역 안착을 도모함
-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b>사업명</b>	2017년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b>사업기간</b>	2017년 1월 ~ 12월
<b>지원규모</b>	294,000천원
<b>지원대상</b>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 기관 · 시설
<b>향유대상</b>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 (※아동 · 청소년 제외)
<b>공모유형</b>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b>주최</b>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b>주관</b>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b>협력</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모유형



기획공모

2년 연속지원/우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협력형 프로그램 지원

- 2016년도 기획공모 운영단체의 적격/부적격 심사
- 2016년도 마을자원탐색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7년도 사업 지속여부 결정
-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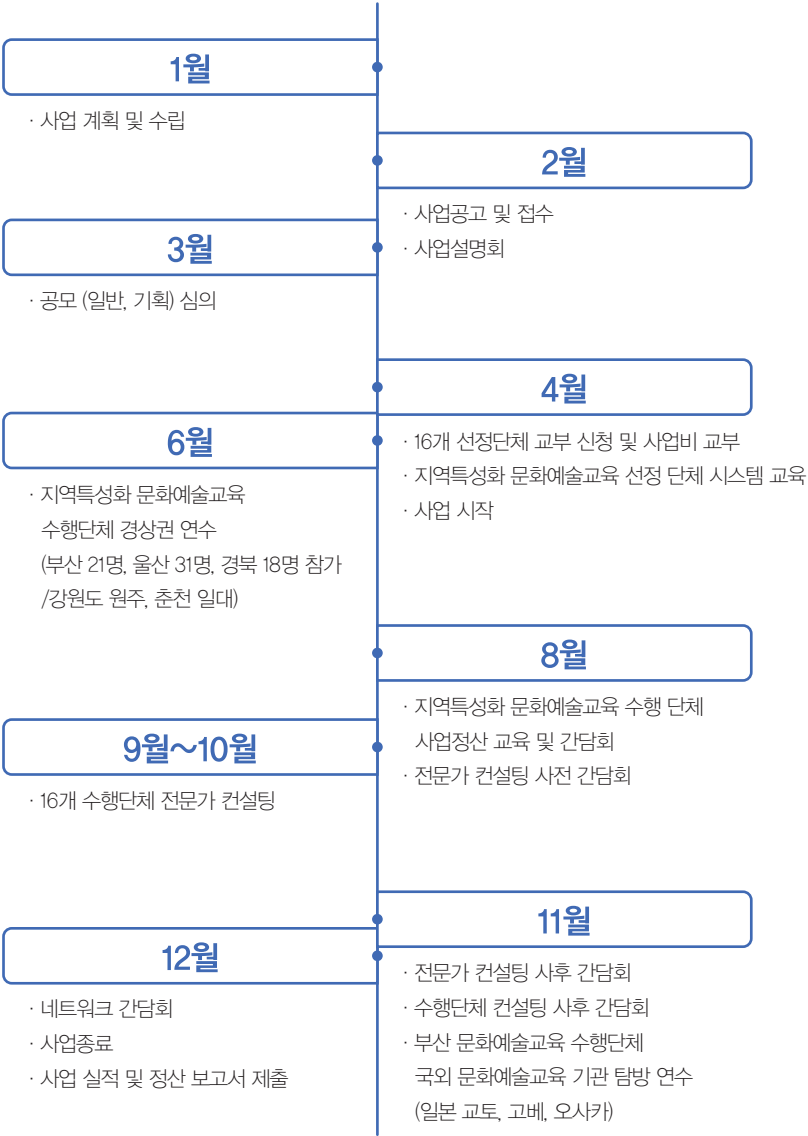
일반공모

생활 밀착·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부산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문화 공간 및 교육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는 향유기관을 선정 후, 교육 참여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예시) 주민들의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한 학습내용
-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환경과 학습자 분석에 근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연속성 및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접근기회 확대 및 보장 (예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교육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전수 및 향유가 가능하도록 기반조성
- 지원예산규모 : 10,000,000원~20,000,000원
- 1개 이상, 2개 이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가능



사업 세부일정





수행단체선정결과



2. 경상권 연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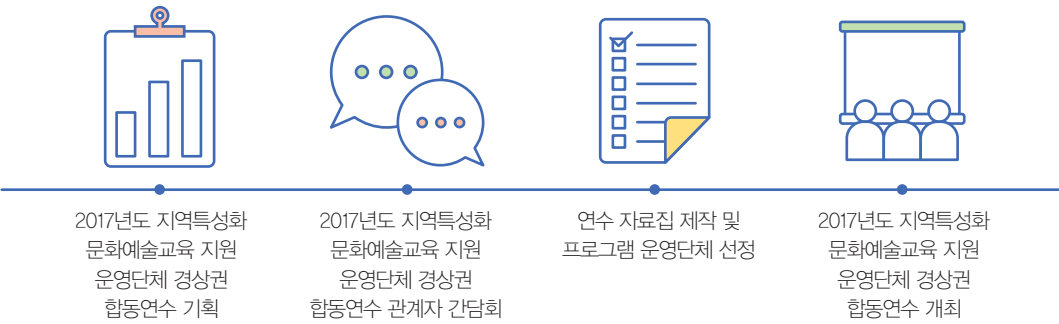
**사업명** 2017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운영단체 경상권 합동 연수  
**일시** 2017. 6. 14. (수) ~ 6. 16. (금)  
**장소** 강원도 원주, 춘천 일대  
**인원** 총 52명 (부산 21명, 울산 13명, 경북 18명)

목적



- 부산, 울산, 경북지역 네트워크 구조를 지속하여 각 지역 간의 정보 공유 및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적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마련
-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강원권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지역적 교류 및 프로그램 적용방안 모색

일정



2017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운영단체 경상권 합동연수 개최

**6.14 (수)** 뮤지엄 산 [관람]  
'안도타다오' 건축물 및 '제임스터렐' 작품 감상



**6.15 (목)** 통통창의력발전소 [사례강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 문화파출소 춘천 공간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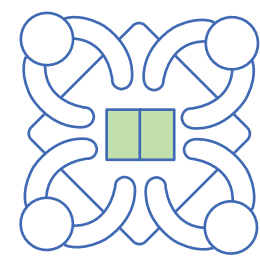
**6.15 (목)** 극단 뒤탈 [워크숍]  
문화공간 예술터발 공간 탐방 및 사례공유 연극놀이 프로그램



**6.16 (금)**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공간탐방]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설문조사 및 조별과제 시상



개최 결과



사례강의 및 공간탐방

- 강원지역의 특색 있는 단체에 대한 사례공유가 적절히 이루어 졌으나 강원도의 특성 상 이동거리가 길어 각 공간별 머무르는 시간이 여유롭지 못했던 점 등은 보완할 필요 있음.
- 특히 방문 단체별 사례 공유 뿐 만 아니라 수업 참관 등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필요함.

자체 워크숍

- 조별 미션 등 시도는 좋았으나 일정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 특성상 준비할 적절한 시간이 할애 되지 못했던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됨. 추후 전문가를 초빙하여 네트워킹 위주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함.

전시관람

- 장시간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른 힐링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접하기 어려운 작가의 작품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적 감성을 자극한 계기가 되었음.

만족도 결과 (참여인원 18명)



전체적인 연수 만족도

매우만족 및 만족 (15명)

방문 장소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장소

뮤지엄 산 (10명) · 극단 뛰다 (6명)

사례 공유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만족 및 만족 (12명)

자체 워크숍 만족도

매우만족 및 만족 (8명)

보통 (8명)

차년도 반영을 위한 건의

- 문화예술기관 탐방 증가
- 차별성 있는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 사례 강의 및 수업 참관 증가
- 조별 활동에 시간적 여유 필요
- 방학 중 연수 일정 조정
- 타 지역과의 네트워킹 기회 증가

3. 언론보도 현황

라디오 방송 총 3회



부산 카톨릭평화 방송 다정다감 다섯시

보도자료 총 5회





## 2

### 16개 운영단체 프로그램 소개



## 극단 여정과 ‘영도에서 떠나는 연극여정’

극단 여정

“영도주민이 직접 지역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연극으로 제작합니다.”

## 헬로우~ 영도! 넌 누구니?

극단 여정과 영도 주민들과의 첫 만남! 영도에서 떠나는 연극여행이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전화해서 오셨다는 분과 영도 주민들끼리 연극을 하기 위해 만든 아마추어 연극모임의 사람들과 연기를 배우려고 온 건 아니지만 무대에 서서 남들 앞에서 용기내서 말할 수 있는걸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분... 이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영도에서의 주민들과의 첫 만남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

## 영도할매와 영도다리의 전설을 찾아서

### 부산 봉래산 영도할매 전설

봉래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자식들이 품을 떠나면 모살 듯이 영도 주민들은 영도를 떠나서는 잘 살 수 없다. 또한 봉래산 산신령은 욕심이 많아서 영도로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밖으로 떠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한다. 특히 영도에 살았던 주민이 영도를 떠나서 영도할매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3년 안에 망한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봉래산은 자식을 품어주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영도에 살 때는 보호를 해주고 밖에 나가면 고생할까 걱정을 해준다. 영도에서 살다가 삼신할매 덕에 부자가 되어서 나간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영도 밖에 나가면 그 재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영도할매가 영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속설은 일본인들의 간계에 의하여 생겨났다. 일본인들은 영도의 지형이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라고 호도하며 이곳에서 돈을 모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절명한다고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영도할매는 영도를 떠난 사람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외지로 나간 영도출신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해 주려는 것이다. 산삼과 불로초를 기르고 있으며 영도사람의 안위를 지켜주며 국가적 위난이 닥쳐 올 때 부산사람을 지켜줄 비밀을 감추고 있다.

### 부산 영도다리

일제가 우리나라는 수탈하던 시기에 사람들의 수송을 위해 육지(남포동)와 섬(영도)을 잇는 부산 최초로 건설된 다리이다. 남항과 북항을 오가는 배들이 지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적을 때는 2회 많을 때는 7회까지 다리를 들어올렸다. 당시 다리가 하늘로 치솟는 신기한 모습을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점차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6.25동란 때에는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였으며 서로의 생사를 알기위한 답답한 심정을 다리 밑 난전의 점바치들에게 물어보던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영도에 관한 지명 및 전설을 공부하면서 연극 대본 작업에 한창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며, 영도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현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았다.



## 영도를 위한, 영도에 의한, 영도이야기 만들기

영도의 원래 이름은 절영도이다. 즉 목장으로 말을 방목한곳으로 유명하다. 절영도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가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못 따라 올 정도라 하여 꺾을 절, 그림자 영 을 붙여서 절영도라 불리워졌다. 그리고 영도의 장사바위...생도라 불리우는 주전자섬... '영도' 순직선원 위령탑... 한 폭의 그림을 보는듯한 아름다운 75광장 등 영도를 위한 영도에 의한 영도 이야기를 꽃피우며 다양한 소재로 접근해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대본화 해보았다.

## 영도다리 이야기로 공연을 해 보자!

"망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면"이라는 막연한 그리움이 남는 한 마디로 시작되었다. 1960년 대 영도에서 배를 타는 선원의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 생계를 위해 먼 바다로 나섰다.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채, 깊은 바다 속으로 사멸한 선원의 삶과 안전가는 돌아올 거라 믿은 채 수십 년을 기다림으로 채워온 가족들의 삶이 있다.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혼령이 되어서라도 한 번쯤은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애환을 담은 채,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던 영도다리가 세월이 흘러 다시 올려 지기 시작하면서 먼 바다에 잠들었던 어머니의 혼령이 돌아오게 된다.

죽은 혼이 이승에서 머무는 시간인 49제라는 시간을 통해 젊은 모습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늙어버린 딸의 못 다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간다.



# 관객의 자리를 찾아가는 한 편의 로드무비

모퉁이 극장과 관객문화교실

“부산에서 특화된 영화 장르를 통해 관객문화를 선도하고,  
관객문화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키우고자 합니다.”



## 모퉁이에서 만난 관객들

### 관객을 조명해야 하는 이유

‘천만관객’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만큼 극장도 영화도 우리 삶의 일부로 뿌리내렸다. 하지만 극장이라는 나무줄기가 굵어지고 영화라는 잎사귀가 거대해질수록 관객은 그 그늘에 가려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영화만큼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숨겨진 관객들을 발견하고 시민으로서 지역의 영화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관객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개소 이후 5년째 줄곧 모퉁이극장이 걷고 있는 길이다.

### 시민관객을 응원하는 모퉁이극장

모퉁이극장은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과 관객들이 서로 사귀고 교류하며 상호학습을 도모하여 관객들이 영화생태계에 건강한 한 축이 되어 영상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문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관객문화응원단체이다.

시민 관객들이 단순한 영화 소비자를 넘어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당연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퉁이극장은 다양한 시민중심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관객영화제, 애프터시네마 클럽, 서울국제실험영화제 협업 실험영화제, 관객들의 밤, BIFF 아주담담X관객토크는 그동안 시민들이 중구에 터하여 함께 만든 프로그램들이다.

### 일상에서 만나는 영상문화, <관객문화교실>

매주 월요일 저녁, 영화의 관객이기에 앞서 관객의 관객이 되는 자리, 관객문화교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영상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관객이 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영화문화계에서 관객의 자리와 역할을 들여다보고, 영화도시 부산에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즐겁게 영상문화를 누리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 관객의 성장기

### 관객들의 상호 배움과 교류 : 나만의 영화 탭텐, 이미지사킴

관객문화교실의 첫 수업은 '나만의 영화 탭텐' 나눔으로 시작된다. 최고의 예술영화, 올해의 예술 영화 열편이 아닌 내 인생과 함께 하는 영화 열편을 이야기하며 우리 각자의 영화사를 새롭게 만 들어보고 스스로 어떤 관객인지 소개하며 알아간다. 또한 나를 응원하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자신 을 표현해보고 이미지가 가진 힘을 깨닫는다.

### 건강한 영화 토론문화 만들기

영화를 함께 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영화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을 형성하고 경 청과 응대의 시간을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화제 : 영화제 실무 체험

관객들이 직접 영화제 행사 실무를 체험하며 일반 영화제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영화제의 차이 를 알게 된다. 또한 시민 중심의 영화제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며 자부심을 갖고 관객이 단순한 소 비자가 아닌 주체가 되는 영화제를 만든다.

### 관객이 관객에게 : 관객활동가들의 관객 응원

관객문화교실 심화반은 관객활동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영화운동 사례연구를 통해 대·내외적 인 영상문화 예술프로그램 담당자로 설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가는 심화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영화 감상과 독서토론, 국내외 영화매체 탐구, 영화자료 수집활동을 통해 차기 관객활동가들을 위한 가 이드북을 제작한다.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염두에 두고 시민사회 연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 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관객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 관객의 관객이 되다

### 관객을 보고 들으며 배우고 응원하는 관객

관객문화교실을 수료한 시민 수강생들은 영화와 관객의 관계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시민들 이 영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수강생들의 반응

김○○관객 “영화를 좋아한다는 게 포털사이트에서 영화와 감독 정보를 찾는게 다 였는데 관객문화교실을 통해 관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새로 운 영화를 접하고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영화친구임을 알았다.”

권○○관객 “영화를 보고 나서 듣는 다른 관객들의 이야기가 큰 공부가 되었다.”

이○○관객 “영화관을 오가다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고 영화에 대해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 한 관객과 다른 관객이 영화 친구가 되고 여 러 관객이 한 관객의 관객이 되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알았다.”

김○○관객 “관객문화교실 수료식 파티 준비를 같이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 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백○○관객 “혼자 볼 때면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도 관객들의 소감을 통해 다시 보 게 되어 마치 영화를 여러 번 본 듯한 기분이 들어 좋았다.”

## 그 후의 관객들

###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쓰는 관객활동가

중구생활문화센터에서 주최한 실험영화제 프로그램인 <40계단 영화실험실> 관객활동단에 관객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참신한 관객 콘텐츠를 통해 중구 지역주민들에게 실험영화를 쉽고 편하게 다가가도록 돕고 주민자치적인 영화제 운영의 모델을 함께 만들었다. 또한 최근 중구 40계단문화 관광테마거리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달빛극장' 프로그램의 진행과 운영을 도맡았다. 홍보 트레일 러 제작 등 상영 전 홍보에 힘을 보태고 당일 적극적인 모객활동으로 지역문화와 시민들의 일상 속 영화문화 향유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시민중심 영화프로그램의 주역이 될 관객활동가

영화를 통해 관객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객영화제>와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수작들을 함께 보 고 관객토크를 펼치는 <애프터시네마클럽>에서 운영과 실무스태프로 활동한다.

### 풍성한 영화콘텐츠 생산에 앞장서는 관객활동가

관객활동가들은 영화제마다 관객 리뷰단을 운영하고 참여도 하는데 그 형식이 관객 개개인의 개 성만큼이나 다양하고 참신하다. 트레일러 영상, 20자평 등을 시민들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림, 시 낭송, 굿즈 제작 등 여러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 관객활동가, 관객문화교실, 그리고 관객

영화계와 관객계는 영화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지만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더 나은 영화 산업 을 위한 영화계 내부의 움직임이 당연한 만큼 관객들의 목소리도 커져야 한다. 다양한 영화를 향 유할 권리, '천만관객'이 아닌 '단 한 명의 관객'으로 일어설 자유를 위해 관객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그 앞에 관객활동가들이 서있을 것이며 뒤에서는 모퉁이극장 관객문화교실이 관객들을 응 원하고 있을 것이다.







## 연극을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응답하라 해운대!!!

문화소통연대 이야기

"해운대구의 가정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지역적 소재가 연계된 드라마를 만듭니다."

여성극단 '봄'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해운대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극단 '봄'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동아리로 정기적인 연극 모임을 통하여 연극 연습 및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2016년엔 부산국제연극제 시민연극제에 참가하여 단체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4회 정기공연을 하였고 문화소통연대 이야기와 함께 경력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낙오감을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다.

연극을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응답하라~해운대!!!)

본 프로젝트는 문화소통연대 이야기가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및 경력 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된 지역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 과정 드라마 만들기 과정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 지역 내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다려지는 화요일!!!

매주 화요일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진행되는 요일로써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8층 강당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일 주일 간의 소소한 개인 이야기에서부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연습 중간 중간 실수 장면과 완성되어질 연극 이야기 등등... 정말 끝이 없는 유쾌한 화요일이다.





# 동래시장, 문화예술장터 이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동래시장 내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서로간의 소통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장터 이음

### 동래이야기와 이음

일제 강점기 때 부산부(府)가 설치될 때까지 '동래'는 바로 '부산'이었다. 그래서 동래의 역사를 이해하면 부산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동래시장 인근에는 동래부사가 집무를 본 동래부동헌, 장관청 송공단 등 인근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 이러한 동래 지역의 문화재를 문화재 해설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옛 동래의 모습을 알아가고 살아있는 지역 주민(동래 지역민, 동래시장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래와 이어지기 시작했다.

### 문화예술과의 이음

청년 예술강사와 기술적으로 숙련된 전업 작가와 함께 팀티칭 수업을 통해 교육생들이 현대와 전통이 통합된 체험식 예술교육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이 생활권 속에서 지역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문화 예술의 주체로서 문화예술과 삶이 연결되었다.

### 동래시장과의 이음

동래시장 인근의 지역민과 동래시장에 계시는 상인, 다른 지역민이 이음 수업에 신청하였다. 교육생 중에는 동래시장에 처음 방문한 분도 계셨다. 흔히 부산의 대표하나는 시장하면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으로 떠올리며 오래된 시장으로 생각하지만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읍내장으로 이어진 문화와 전통 있는 시장이다. 동래시장 교육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참가자들이 동래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 동래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상인과 소통이 시작되는 모습에서 앞으로 교육생과 동래시장의 끈끈한 이어짐을 기대해본다.



## 청년 예술강사-전업 작가와의 이음

### 청년 예술강사와 전업 작가(도자기, 사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음 수업

청년강사 K “나는 아직까지 꿈을 그리기 좋아하는 청년강사이다. 올해 다양한 분야 의 전업 작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참 재미있었다. 표지현 선생님과 뿌리야김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함께 팀티칭으로 수업을 이끌어 갔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작가 선생님들의 전문성(도자기, 사진)과 다년 쌓아온 티칭을 직접 보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뿌리야김 선생님과 수업 전 동래시장 인근 작은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이야기 나눌 때 뿌리야김 선생님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전업 작가의 고단한 삶에서도 꿈을 꾸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 청년-장년-노년 전세대층의 이음

###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층의 교육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음 수업에는 대학생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집되었다. 처음엔 우려되면서 기대도 되었다. ‘남녀노소가 모두 모인 자리는 어떤 분위기일까?’ 이음 2기 수업에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인상 깊었다. DSLR 카메라를 챙겨 오셔서 사진 수업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앞으로 문화예술장터 이음에서 청년, 장년, 노년층의 이어짐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다온산 여서 좋다  
우리마을의 흥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이바구 캠프를 거점으로 춤과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이바구길

이바구길은 6.25피난민들이 용기종이 모여 살던 산을 깎아 만든 동네이자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특히 이곳 초량산복도로 6동 7통은 엄마의 가슴 품 같은 산이 주변에 에워싸여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님들의 삶을 오롯이 기록해보고 싶어졌다. 그중 몸과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재밌고 신나게 이야기를 그려내 보고 싶어졌다.

## 초량 어머니들의 역사

우리 마을에 흥? 100가구가 채 안되는 동네에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74년도 판자촌 집에서 시작한 고된 시집살이와 산아제한 정책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구박을 하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엄마들이 있다. 산을 타고 아기를 등에 짊어매고 다녀야 했던 그곳의 고단함과 끈기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격렬한 투쟁을 하였을 때 발휘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단합 혹은 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갈등을 초래한다. 지형에서 비롯되는 열정은 곧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과 흥으로 귀결되니 이곳에서 산을 타고 살아오던 열정을 재밌고 새로운 방식의 우리 마을만의 흥으로 찾아 가보자였다. 그것은 몸의 흥!



## 그녀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

워낙 마을이 작다보니 이야기의 골도 깊었다. 이것을 어떻게 듣고 풀어볼까? 연극을 연출하시고 배우이기도 하신 극단 창고의 김병철 선생님과 무용가 김유한 선생님이 이끌어주던 20차시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풀고 우리가 가진 새로운 공기의 흐름을 계속 넣어보는 시도였다. 운영진들이 넣었던 공기의 흐름은 1)그림으로 우리 마을의 현재와 지금의 모습을 표현해보기 2)글로 나를 표현하여 이웃에게 설명해보기를 통해 이웃의 긍정적인 호칭으로 이어가기 3)몸짓으로 단어 표현해보기 등 기존 연극이라는 요소를 연극놀이로 풀이하였고, 춤은 몸놀음으로 풀이되었다. 이렇게 숨겨진 몸의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쉬운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니 서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졌다.

놀이로 유지한가? 아니다. 연극과 춤의 기능적 요소보다 자연스런 몸과, 행동을 스스로 타인에게 노출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나 아닌 우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 엄마들의 에너지

중반기를 넘어 최고의 목적은 즐거움, 인생의 쾌락으로 현 수업의 목적을 엄마들이 나를 세웠다. 이런 분위기를 싣고 초량 인근 고등학생 친구들과 오픈 특강을 열어보았다. 연극과 무용의 요소를 활용한 팀별 활동으로 서로 처음 맞이하는 구, 신세대였다. 어색한 시간을 뚫고 연극의 요소 중 몸 연극, 극놀이를 통한 상황극 돌입으로 아이들이 지금 고민, 엄마들의 응원메세지로 울고 웃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무용의 3요소인 몸을 이용한 시간, 공간, 힘 표현이었는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응원하며 단 1분을 매우는 난해한 미션임에도 '역시 우리 엄마들은 해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끝나고 물어보았다. 처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냐고... 아니란다. 정들자마자 헤어져 그저 너무 아쉽다고 했다.

## 나눔의 발표회 준비 과정

열정적인 엄마들에게 가장 잘 맞는 춤은 라틴문화인 살사동작의 요소를 접목시킨 춤이었다. 그동안 과정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나눠보자. 노래와 구성은 함께 논의하여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로 정했다. 뜻은 운명인데, 가사를 읊어보니 엄마들과 많이 닮아 있는 가사이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을 훑어보니 만남, 기쁨, 자유라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이 곳에서 열심히 그녀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춤으로 풀어보려 한다. 10월 헤지는 가을 밤쯤 예정이다. 이제 소설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진짜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불행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으나 지금은 살맛이 난다'



# 베누스토와 함께하는 동구이바구 ‘네 사람의 발자취’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동구 출신의 시인 유치환, 장기려 박사, 시인 김민부, 화가 이중섭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동구 주민들이 직접 옴니버스 뮤지컬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 동구를 거쳐 간 네 사람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켜 동구지역만의 고유한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부각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재조명, 특성화하여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부흥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부산동구의 산복도로에는 그들을 기리는 유치환우체통, 김민부전망대, 장기려박사 기념관, 이중섭거리가 조성되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자 의도하였다.

### 네 사람의 흔적탐방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부산 동구에서 생의 한 부분을 살아온 유치환시인, 장기려박사, 김민부시인, 이중섭화가 네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 주민배우들과 함께 결코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다간 이 네 분의 흔적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탐구, 스토리텔링 하여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단막극으로 만들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목표 및 기대효과

동구지역주민들을 발굴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연을 매개로 하여 참여자들의 자긍심, 자아실현의 계기마련과 함께 소통,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속 문화예술 향유, 지역애향심 고취와 동구지역만이 가지고있는 문화원원을 발굴, 활성화하여 지역사랑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 동구를 기대하며 참여배우들의 내재된 끼와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 천재 시인 김민부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첫 시집인 <항아리>를 펴낸 김민부는 1957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석류)가 입선되고 이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균열>이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으며, 방송작가,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 등으로 동구 출신 천재시인 김민부는 15세 때 신춘문예로 등단해 3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6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 화가 이중섭

이중섭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0년 동안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45년 귀국하면서 일본인 아마모토 마사코와 결혼해 함경남도 원산에 동지를 틀었다. 그러나 사업가였던 형이 처형당하고, 소련 평론가들이 이중섭을 '인민의 적'으로 공격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1950년 12월 원산을 떠나 제주도에 머물 때 황소와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그렸다. 그러나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뒤 이중섭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무절제한 생활과 과음으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제주도를 떠나 부산동구 범일동에서 부두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 담뱃갑 은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당시엔 그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1956년 9월 6일 서울 서대문적십자병원에서 고달팠던 생애를 마감했다. 향년 40세였다. 시인은 무연고자로 처리돼 3일간 방치됐고, 침대에는 밀린 입원비 18만원의 계산서가 놓여 있었다.

### 성산 장기려박사

성산 장기려 선생은 평생 동안 집 한 채 없는 무소유로 일관하며 헐벗고 의지할 곳 없는 이웃을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부산동구 좌천동에 설립해 이웃사랑의 실천자, 시대의 성자로 알려져 왔다.

### 청마 유치환

한국 근대문학사의 거목인 청마 유치환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5번지인 이곳에서 1908년 음력 7월 14일 아버지 유준수와 어머니 박우수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31년 문예월간 제2호에 시 '정적(靜寂)'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후 1937년 당시 시단을 풍미했던 정지용의 시에 감동, 형 유치진과 함께 동인지 '생리(生理)'를 발간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고,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조' 발간과 더불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 온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문화상 및 예술원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1957년에는 한국시인협회장에 피선되었으며 경주여중고, 경주고, 경남여고 교장을 거쳐 1967년 부산남여상 교장 재임 시 부산 좌천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국문단의 거목이다.

# 자연 속 생태예술 바투아트의 “밭!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 바투아트

“기장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생태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술이 숨 쉬는  
대룡마을의 텃밭도화지

기장의 동북쪽 끝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예술마을을 형성한 대룡마을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이 있다. 이곳은 1997년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공간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촌이 형성된 곳으로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예술작품들이 남아있고 작은도서관, 아트팝 갤러리, 무인카페, 예술가 작업실 등이 있어 주말이면 인근 도심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예술이 숨 쉬는 이곳 대룡마을에서 바투아트의 생태예술수업인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가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시작되었다.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도농복합지역인 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주민이 생태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생태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논촌의 텃밭이 도화지가 되고 그 곳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며 이를 통해 힐링하며 나를 돌아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학습자들이 함께 예술이 피어날 텃밭도화지를 꾸미는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텃밭에서부터 두부상자를 이용한 재활용 텃밭, 수레를 이용한 이동식 텃밭 등 모두가 함께 텃밭 도화지를 만들었다. 각각의 텃밭도화지에는 도화지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채소와 허브, 관상용 식물 등을 재배하였다. 정크아트 활용한 이동식 텃밭(상자텃밭, 수경재배발, 수레발)을 만들면서 우리는 생태 예술이 우리일상 어디에서도 가능성을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완성된 텃밭 도화지에서 직접 재배한 자연물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생활에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마을 곳곳에 있는 자연과 예술을 접목시켜 보는 다양한 수업을 하였다. 특히 자연물을 활용한 수업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다양한 자연의 모양과 색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활동하면서 심적 위안을 느끼기도 하였고, 화차를 거둬들수록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바투아트의 슬로건처럼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DIY를 통한 스타트 업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는 텃밭활동과 재배활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자연 속에서 스스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나를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었다. 재배한 허브를 이용해 예술버터 · 오일 · 양초 · 니스를 만들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무신과 나만의 명품 예코백 · 라벨 등을 만들면서 자연 속에서 실현된 상상력과 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고, 자신의 신체 일부가 예술의 도구가 되어 손가락을 이용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과 심신의 안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수업을 통해 하나씩 만들어진 제품은 중간 중간에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도 하였다. 학습자들은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느꼈고, 이는 학습자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켜 미래에 스타트 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였다. 더불어 텃밭체험과 다양한 공통작업을 통해 땀 흘리는 즐거움과 ‘함께’라는 의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함께하는 생태예술  
힐링의 즐거움

생태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투아트의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는 현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닌 예술활동과 생태를 융합한 ‘생태예술 힐링’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대도시와 30분 거리에 있지만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는 이곳 장안의 대룡마을에서 지역특성화문화프로그램인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을 통해 살아있는 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게 해 주고자 하였다. 어쩌면 정신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다양한 생태예술 활동은 바로 걸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쁨과 더불어 지역민의 정서적 충족감을 채워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역문화특성화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일상의 생활에 예술을 더하고 예술이 행복한 삶의 밑바탕이 되는 지역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룡마을의 여러 공간들이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예술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 인근 도시민들과 지역민 누구나 자연예술 공간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 나와 우리 동네, 미디어로 소통하기

미디어교육연구소

“미디어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에세이를 통해 마을의 기록을 남깁니다.”



## 나를 표현해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표현하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서툰 우리들의 마음 속 생각을 남에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알아가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인드맵 형식을 이용, 나를 돌아보고 표현한다. 또 나의 꿈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꿈꿔본다.

## 미디어로 친해져요 (미디어를 배우며 함께 친해지기)

다양한 미디어 활용법을 익히고 미디어와 친숙해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앗! 이런 기능이 있대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 사진을 만들어본다.



우리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사진이 있지만 찍고 나면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진을 위해 찍기 전 왜 이것을 찍으려는 지 먼저 생각하고 또 표현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사진 찍는 방법을 터득해 간다. 또한 동네의 숨은 장소, 이웃이 많이 모이는 장소, 내가 즐겨 찾는 장소 등을 돌아보는 '우리 동네 곳곳 돌아보기'를 진행하고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내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 찾기를 함으로써 동네를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이 필요함을 알아본다.

미디어로 소통해요  
(나도 팟캐스트 스타~)

1인 미디어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도 도전 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너도 하니? 나도 한대!'를 통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대해 알아본다. '팟캐스트, 어렵지 않아요.'는 자녀들과 함께 조를 짜서 서로 · 수정 보완하며 재미있게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나도 팟캐스트& 유튜브 스타~'를 통해 시작이 반이라는 명언처럼 청소년들이 일단 시작해보면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본다.



미.인.도.Go!  
미(남역)인(사람)들  
도서관으로 가다 Go!

세상과 소통하기

“동래구 지역의 자은 책방이니 보라책방을 거점으로  
인문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주민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이웃을 찾Go,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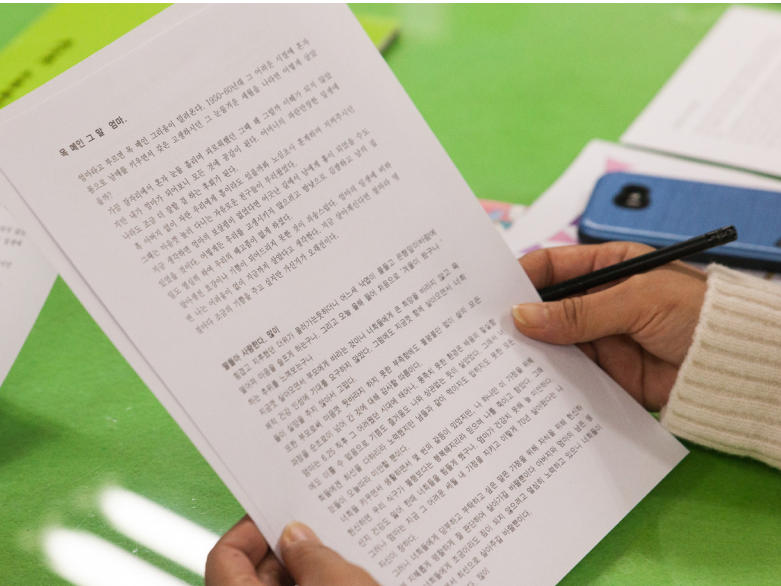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인 ‘보라책방’에서 무조건 만나!

입주한 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잊혀진 공간으로 전락한 작은 도서관 ‘보라책방’을 되살리는 일의 시작은 사람이 모이는 일부터다. 매주 화요일 그곳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일을 알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네에 ‘미인도 Go’의 안내지를 붙이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서로의 마음을 여는 네임텐트 소개하기, 마을 카페가 책방으로 들어와 들려주는 커피 이야기로 도서관으로 오는 길을 마련해 보았다.

마을을 알Go, 담Go, 함께 보Go!

마을을 담은 인문지도 그리고 새로운 시도

마을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마을 안에 오래된 이들이 전해주는 보물 같은 정보들이 이웃과 더 살가워지게 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두 팀으로 마을을 탐색하고 함께 돌아보며 사진에 담고 주인장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만의 인문지도를 완성했다.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하여 가방에 새기고 T-셔츠에 새기니 우리는 마을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 듯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게 구포도서관 직장 문고를 신청하여 100권의 책을 빌려 도서관에 비치하니 도서관의 이벤트가 되었다.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함께 머리를 맞대Go,  
함께 배우Go,  
함께 만들Go!

보라책방에서 즐기는 신나는 문화예술교육

아이들 방학을 맞아 학습자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놀러 올 수 있게 ‘보라책방 문화 데이 1~4탄’을 마련하여 홍보를 했다. 학습자들과 도서관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체험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자의 유입이 이뤄졌다.

마을 주민이 찾은 해답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정체기를 맞이하며 속고하고 있던 중 재단의 작은 도서관 운영 경험을 가진 전문가 컨설팅은 단비와도 같았다. 컨설팅 이후 ‘보라책방의 현재는?’이라는 주제로 액션러닝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보라책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았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드나들고 편하게 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보라책방’을 정체성으로 정하고 한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한걸음 한걸음의 변화를 보다.

우선 매 차시마다 30분 정도를 할애하여 도서관의 오래된 책 정리와 공간을 분리하였고 책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매 차시 학습자 스스로 변화된 도서관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 이웃에게 소개하고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도서관의 관장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변화는 더 두드러졌다.

‘미인도 Go’의 마을 축제 ‘미인시대’를 함께 한다.

해마다 하는 보라책방 ‘아나바다’를 미인시대 축제와 함께 열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축제를 위해 이웃이 모이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도서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기획하기로 했다. 도서관 옆 공터를 활용한 축제 부스 운영, 구포도서관의 원화를 도서관으로 전시하여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미인도 Go’의 나아가

여전히 보라책방에 오는 이는 한정적이나 미인도 Go의 진행 기간 동안은 물론 이후에도 매주 화요일은 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임을 각인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숨어있는 마을의 인문학자를 찾으려 한다. 우리는 쿨트 한 장 하면서 삶을 드러내고, 캘리 하나에 인생을 담고, 같은 그림 다른 해석에서 다양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매개로 이웃과 사귀고, 도서관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올 겨울 도서관은 늘 책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다.

함께 즐기Go!  
함께 꿈꾸Go!





## 정미숙 무용단의 고향의 봄 Ⅲ

정미숙 무용단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들의 무용신체활동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한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합니다.”

### 내 마음 들여다보기

70평생을 살아온 사할린을 떠나 부모님들의 고향인 우리나라로 영구귀국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두려움과 갈등을 마주하였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은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하여 언어 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과 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변화에서 오는 자신감 상실, 등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상태를 인지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인정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무용치료 프로그램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세션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내 몸 이해하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노화라는 신체상의 변화, 사회적 고립감, 자신감의 상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은 적극적 성격과 부지런하며, 자립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극적인 삶을 살아 온 분들이라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상실감으로 우울한 상태이지만 노년에 찾아온 고국에서 누구에게도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신체표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체력 유지 자신감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게 한다.

### 내 몸의 소리 나누기

긴 시간을 사할린에서 생활하다보니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활 속에서 이어졌던 우리의 문화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고, 고국생활에서도 쉽게 경험 할 수 없었고 특히 우리의 문화예술 분야는 더 그러하였다.  
고국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전통악기인 북을 이용해 장단 배우고 리듬을 만들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다.  
여러 사람이 한소리를 내어 연주하기위해 서로를 인지하고 배려하며 협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사할린에서는 본적도 없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 해본다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소리를 만들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 모두 함께 나누기

### 행복한 시간

“현재 기장군 정관읍에 거주하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할린동포 김차이주입니다. 우리는 오랜 타국생활에서 오는 괴리감, 생활습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 조차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새로이 정착한 고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생활 적응도 어려웠고, 지역민들과의 교류도 힘들어, 사회 활동도 어려워 생활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화 활동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고향의 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안 매주1회 진행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할린동포들은 행복해 합니다. 우리의 전통춤 배우고, 우리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다양한 놀이도 배우며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동포들과 함께 많이 웃게 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북 리듬을 느끼고 따라 해보지만 쉽지가않아요. 언제나 잘 될까? 잘 될 때까지 쿵따따 쿵따따..... 이러한 수업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가슴 가득 행복을 안겨줍니다.

비록 미흡한 실력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과 소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있는 우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수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화투스

###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산복마을의 유일한 놀이문화인 ‘화투’와 문화예술교육이 만나 새로운 놀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산복마을 어르신들은 왜 화투놀이를 좋아하실까?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화투스

추진 배경

중구 원도심의 산복도로, 망양로(대청동) 주민들은 어르신이 대부분이다. 한국전쟁과 근대화의 격동기를 지내면서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타향민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등도 많은 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로 자갈치 시장, 공동 어시장, 국제시장 등에서 일을 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분들이 많으며, 힘든 세월을 겪어오는 동안 잠시 쉼이 나면 화투놀이를 여가 문화를 즐기며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거나 삶의 즐거움을 찾아왔다.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는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건립된 금수현의 음악살롱(커뮤니티 문화센터)을 2013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해오면서 마을 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며 나아가서는 삶의 새로운 길을 찾고, 공부와 놀이로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인문 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모색해왔다.

마을 주민들의 여가문화인 화투놀이와 인문 공동체인 이마고의 인문학자, 예술가, 스토리텔러의 인문·문화예술 교육 커리큘럼이 융합된 <놀이하는 산복 마을: 호모 화투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꽃(花)들의 전쟁(鬪)이라는 뜻을 가진 화투(花鬪)놀이에는 꽃과 새 등 자연이 있고, 화투놀이와 함께 해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놀이가 있다. 그 점이 바로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다. 놀이가 삶이 되고 예술과 인문학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 시행하여 노인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고자 한다.

화투가 꽃들의 전쟁이라고? : 호모화투스와 예술 창작  
화투 속의 꽃 꾸미기로 나도 예술가

거대화투 꾸미기

A4 용지 크기의 거대 화투에 한지로 수놓기가 시작 되었다.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도 미술 시간이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요 와서 딱 잡혔구만은.....’ 하시면 서도 손은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신다. 색색의 한지로 선만 그려진 화투에 수를 놓으시면서 화려한 화투가 탄생되자 이걸 정말 내가 꾸렸냐고 하시면서 연신 싱글벙글 하신다. ‘예술이 별거가? 내가 창조하면 그게 바로 예술인가?’ 하며 자신만만해 하신다. 어머님들이 살아오시는 동안 쉼 없이 온 몸으로 무언가를 해 오셨던 일, 그것이 바로 예술창작 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부산일보사, KBS 라디오, 평화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서 어머님들의 호모화투스 활동을 여러 곳에 알리고 싶어 취재를 왔다. 인터뷰에 나선 어머님들의 환한 표정 속에서 예술가의 당당함이 느껴진다.



내 인생은 퐁팡? 비광! : 호모화투스와 인문학  
화투에 얹힌 인생 이야기로 마음 풀기

내 인생과 화투 이야기 ‘화투 인형극’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못 가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 아버지가 안 보내줘서 결국 임종 전에 못 뵈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리 속도 많이 썩이더니만, 인자는 아파서 제가 보살펴주기만 바라고 있네요. 여기 산복도로에 시집와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동네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자는 아이들도 다 크고, 짭 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과 화투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화투놀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재미로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잘 보살펴주고 계시지요..... 참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걱정만 시켜드린 이 불효녀를 용서해주십시오.....’

직접 인형을 만들어 즉석에서 보고 싶은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인형극을 만들어 시연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들을 다 풀어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의 내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고, 그 인형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그래, 애썼다, 애썼다.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거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과거로 떠나는 화투여행 : 호모화투스와 놀이  
화투주사위 놀이로 우리가 만든 마을 말판 달리기

옛날 우리 동네 모습으로 말판 만들기

‘우리 집 벽에는 여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기 형님 집 담벼락에는 빨래도 그려 넣고.....’

우리 집을 꾸며서 입체로 만들어 마을 전체로 말판을 만들며, 옛날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때는 그리도 힘들고 서러웠던 타향살이였건만, 이제 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임을 알겠다. 다 꾸며놓고 보니 우리 동네가 참 멋지다.

커다란 주사위에 화투 숫자를 붙여 윷놀이와 주사위 놀이, 화투 놀이를 접목한 새로운 놀이로 하도 웃고 떠들어서 그 동안 묵은 스트레스는 다 날려버렸다.



# 다양한 사람! 다양한 노래! 다인다 SONG

이주민 문화센터

“2개국 이상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중창단으로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립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새롭게 다가온 이웃과 좋은 친구하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사상구(4,825명)는 최근 부산에서 강서구(5,43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다.(참고 :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 특히, 감전동, 괘법동, 덕포동 일대에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은 결혼이주여성들과 유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사상구가 다양한 대중교통의 요충지이며, (시외버스터미널과 경전철 그리고 지하철이 시통팔달 연결되어 있다) 인근지역에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 이주민들의 이동과 유입이 활발할 뿐 만 아니라, 장기체류의 환경도 비교적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민과 지역주민(정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차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음악관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가장 훌륭한 매개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참여하면서 공동작업을 완성해 나간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되어 '다인다송 = 다양한사람 다양한 노래'를 계획하게 되었다.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노래교실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이 중창단원으로 활동**

훌륭한 지휘자와, 반주자, 보컬트레이너(특강강사)를 확보하고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울까? 약간의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나머지는 신나게 노래하기? 즐거운 상상을 하며 단순참가자들이 중창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어쩌면 '다인다송 중창단'을 구성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단계를 먼저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차후에 자신들만의 모임이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기

함께 있음에 기쁜 우리

함께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하였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노래를 한다. 베트남 사람도, 중국 사람도, 네팔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두 같은 노래말과 박자에 맞추어 같이 노래 부른다. 잠깐 쉬는 시간이면 다른 언어와 다른 억양으로 말하지만 노래하는 시간이 되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모두의 목소리를 맞추어 간다.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참여하는 수연씨와 응아씨,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참여하는 저머나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공예교실에 갔다가 뛰어오는 네팔댁 송희씨와 세영씨, 둘째 아이 키우느라 뜬한 옷씨, 부업과 둘째 아이 양육 때문에 만나기 힘든 옛씨, 이직(移職) 덕분에 쉬는 날이 바뀌어 버려 참여가 당분간 어려워진 향수씨, 시집 온지 3개월 된 프리마씨, 청춘언니 명희 언니와 꽤나공방의 은주씨 등. 모두가 나이불문 국적불문으로 즐겁게 오후 한 때를 보낸다.

창문 밖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불안한 음정의 멜로디가 흘러나간다. 익숙한 듯 낯설게 느껴지는 노랫말이 무심한 듯 다정하게 동네 골목으로 나들이를 간다. 나른한 오후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아낙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꿈꾸는 날 ‘목요일’이다.

다양함이 주는 기쁨과 어색함 발견하기

차이의 발견 그리고, 조화

연습시간이 오후1시 부터여서 점심시간이 애매하였다. 그래서 12시 30분 부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 처음에는 교실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모든 준비를 했다. 주1회 같이하는 간단한 점심식사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게 느껴질 때쯤 수연씨가 ‘다음 주는 저희가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한다. 그러자 네팔댁들이 ‘그렇다면 그 다음 주는 네팔음식 해먹어요.’ 갑자기 풍성해진 점심시간이다.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일부 결혼이민여성 중에는 학교에 음악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악보를 볼 줄 모른다고 했다. 당황한 선생님은 악보 보는 방법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래미송을 같이 불렀다. 현재까지 전공자 혹은 음악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학생들만 지도하다가 전혀 새로운 부류의 존재를 만나게 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지휘자 선생님은 난감해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선생님과 참여자들은 음악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깊이 공감하는 사이가 되었다. 비록 음악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은 다르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향상되어 가는 모습이 고마운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취업으로 인해 장기결석 혹은 중간 이탈이 많아 몇 몇을 제외하고는 출석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어쩌면 지역주민(정주민)과 함께 노래교실을 만들어가고, 중창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교실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많은 숫자가 현재까지도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인다송’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중창단원이 된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모니

같이 부르던 노래를 이웃에게 들려주기

매년 이주민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름캠프와 성과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확인 하고 무대에 서 보는 경험을 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무대에 선다는 것이 참여자들을 설레이게 하는 것 같았다. 물론 공연이 끝났을 때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높여주고 팀워크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매년 교체되는 참가자들과 중도 이탈하는 이주여성들의 비중이 높으니 외부에서 초청하는 공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연습곡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실력도 쌓여지지 않았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지만 이러한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휘자 선생님의 ‘심기일전 합시다.’라는 화이팅과 다짐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용기를 내어 초청공연에 몇 차례 응했다. 사상구 민간협의회 ‘사상민’의 워크샵에 식전공연을 하였으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추석맞이 행사에서 게스트로 참여 하였다. 물론 성과발표회도 준비중이다. 결과는 대체로 만족이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실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듣는 이와 부르는 이와 교감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언론의 관심도 있었다. MBC라디오와, PBS라디오에서 연습하는 장면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언론을 두 번이내(?) 타게 되었다. 희소성에 의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정주민 중심의 중창단에 한 두 명의 이주여성이 포인트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닌, 이주민과 정주민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서툰고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밀거름이 되어 새롭고 독특한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 좀 더 가볼까? 똑바로 걸어서...

평심마을문화원

“생활연극을 통해 주민 간 소통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 어린이문학을 즐기고 동심을 지켜나가는 곳

평심마을문화원은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문학을 즐기고, 어린이 문학정신(동심)을 지켜나가고자 설립되었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마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생활 연극 만들기- 좀 더 가볼까? 똑바로 걸어서...

평심에서는 연간 2회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생활연극을 만들고 공연해 왔다. 2017년 생활 연극팀 두근 두근 당당하게 8기를 이어가며 우린 똑바로 걷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힘들지만 좀 더 가보자고 외친다.



생활연극  
두근두근당당하게

‘두근두근당당하게’는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이 협응하여 어린이문학을 기반으로 함께 공부하고 놀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는 어린이문학정신(동심)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북돋는 과정이며 그 결과물로 완성된 생활연극은 더 많은 이웃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준다.

아기장수 우투리와 나

이번 8기 활동은 연극놀이 등을 통해 나와 이웃을 이해했고, ‘아기장수 우투리’를 여러 가지 재화로 공부하는 동안 옛이야기의 현재성을 이해했다. 그리고 어린이문학과 추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보는 눈과 우리들의 육아, 교육문제를 고민했다. ‘아기장수 우투리’와 우리의 고민을 극에 담은 생활연극을 발표하는 과정 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날개를 꺾지 않는 어른과 사회를 만드는 용기를 위해 함께 더 나아가야 함을 느낀다.



위풍당당 어르신들의 예술창작  
이기(二妓) 날개를 달다.  
그리고 ‘세상은 요지경’을 창작하다.

햇빛연극단

“용호동의 세계적 정신문화유산인 이기대의 역사적 계승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긍정적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은 식지 않았다.

뒤늦게 시작한 연극 열정 3년차. 분명 멋모르고 출발한 만남이었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다. 한 작품을 잉태하고 나면, 조금만 더 잘할 결 하는 욕심은 어르신들 에게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아닌 이젠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일주일 중 수요일의 만남을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어 계신다.

청춘은 아니지만  
청춘을 연기한다.

연극이 아니었다면 꿈꾸지 못했을 청춘의 연기. 하지만 지난날의 세월을 또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청춘을 그리워했던 것만은 아니다. 앨범 속에 담긴 추억을 살아 숨쉬게 하는 예술의 꽃을 이제야 보았다. 꽃은 피고 지지만 인생은 한번 쭉~욱 가는 것이다. 피고 지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나의 인생이여~ 평생의 꽃이여~

당신의 소중한 인생~  
나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인생

연극은 관람하면서도 예사롭지 않다. 예전에는 단지 웃음을 던져주면 좋으련만 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작품 속의 삶들이 나에게 다시금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남은 생이 무엇이 중요하리라는 여태 살아 온 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의 삶을 떼땀이 던질 수 있는 편안한 인생벤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예술이 나의 삶을 또 다르게 이끌고 있다.

실수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고단한 삶을 예술의 향기 속에서 따뜻한 추억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풍족함이 삶의 만족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어느새 나의 주변에는 함께 하는 삶의 연속이 담겨있다. 인생에서의 실수는 크나큰 후회이지만 예술에서의 실수는 웃음 더하기 웃음이 될 수 있다. 잘 하려는 욕심보다는 최선의 열정이 나의 삶의 마지막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다. 열정은 언제나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값어치 있는 유산이기도 하다.





# 그림책과 덩굴덩굴 마을과 얼쑤절쑤

햇살나무도서관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연극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 함양 및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입니다.”



## 마을, 우리들의 일상이 계속되는 곳

### 일상의 행복찾기

마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단하다보니 돌아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믿을 사람이 없다며 이웃과 담을 쌓고 살지는 않았을까? 나만, 내 아이만 문 제없으면 돼 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지 7년, 여성들을 만나다보면 기회가 되면 다른 구로 이사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흥흥한 사건들은 왜 사당구에서만 일어나냐며 비관적 말들도 심심찮게 나온 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안에서의 삶이 여유로울수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개인에게 가족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나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 덩굴덩굴 추억 속 옛놀이 소환

우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한다. 몸으로 부대끼며 친해지고 정겨운 옛놀이를 통해 유 년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좀 더 가까워졌다. 그 옛날 밥 싸들고 친구 집에 놀러가 밥을 먹었듯이 도시락을 싸와서 도서관에서 밥도 같이 먹었다. 꼭 한술밥 식구처럼...

이렇게 만나다보니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불안한 마음과 조금한 마음들이 위로와 격려 속에서 안정을 찾고 웃음이 많아지며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당굴당굴 놀며 함께 성장한다는 것

그림책에서 길을 찾다

다양한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 토론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추억을 이야기하다보니 마음의 문을 편하게 열게 되었다. 책속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삶이 고스란히 이야기되는 것에 놀라고 그림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으며 다음시간에 읽을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도 하였다. 읽은 그림책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골라 그림자극을 준비했다. 그림자극을 준비하면서 난생 처음하는 작업들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민들레인형극단에 탐방도 가보았다. 혼자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두들 스스로에게 감동받았단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림자극 공연을 마치고 뿌듯함과 감동을 나누며 함께 하는 작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유쾌한 엄마들의 반란

‘그림책과 당굴당굴, 엄마예술단’

우리 마을, 우리 삶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가?  
이제 시작이다. 다양한 방식의 책읽기를 통해 나와 우리아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림책을 들고 사람을 만나며 위로와 격려가, 웃음과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



피란자산 소막마을,  
힐링투어와 문화예술의 만남  
(마을을 그리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함께 나누다)

도시건축재생연구소 건전지

“우암동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특성 및 주민들이 생활상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화 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마을을 읽고 그리다  
(마을지도 그리기)

우암동에 오랜기간 살아오신 주민분들의 숨겨진 마을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피란1세대 (80대) 분들에 대한 인터뷰 및 채록을 실시하였다. 주민, 주강사, 보조강사(문화예술매개인력) 3개 팀으로 나누어 인물지도, 우물지도, 워킹힐링 투어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평생을 우암동 주민을 위해 헌신하신 안토니오 신부님(동향성당)을 2회에 걸쳐 인터뷰하여 기록화 하였다. 신부님의 우암동에 대한 사랑의 기록들은 차후 만들어질 소막사생활사전시관에 자료화하여 전시할 예정이며, 또한 드론 촬영을 통하여 우암동 소막마을 일원의 모습을 세세히 촬영하고 12주 전 과정의 수업 프로그램을 교육 동영상(8분)으로 제작하였다.

함께 나누다  
(우암동 마을공연극)

우암동 주민(우암워킹동호회팀, 우암동 새마을경로당, 산수부녀경로당, 산수경로당 등)들은 처음 접하는 공연극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처음 2~3회 교육시간에는 춤과 노래연습으로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나, 차츰 개인 대시연습에 들어가자 출석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획가와 강사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연배우급 주민(5~6명)은 연습시간을 더 늘려 개별 레슨방식으로 가고, 조연 및 엑스트라급 주민들은 강사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극 수업'(Two-트랙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연극에 직접 출연하지 않는 주민들(경로당 할머니복지, 할머니들)도 마을공연극 행사프로그램에 나오는 합창(우암동 차차차)을 연습하는 등 가능한 많은 주민이 마을공연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다행히 마을공연극 행사에 100여분 넘는 우암동 주민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는 마을잔치를 치를 수 있었다.



마을을 이야기하다 (피란자산 투어해설)

2차년도에는 지역의 잠재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소막마을 힐링투어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피란자산 마을해설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피난수도 유네스코 등록' 및 '근현대 관광벨트화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막마을 피란자산해설사는 소막사생활사전시관을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지역의 역사문화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새뜰사업) 사회경제팀 및 남구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남구 역사문화컨텐츠 발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다

우암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기획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였으며,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왜 우리 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관심 및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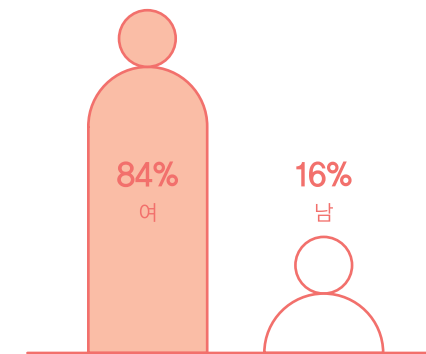
# 3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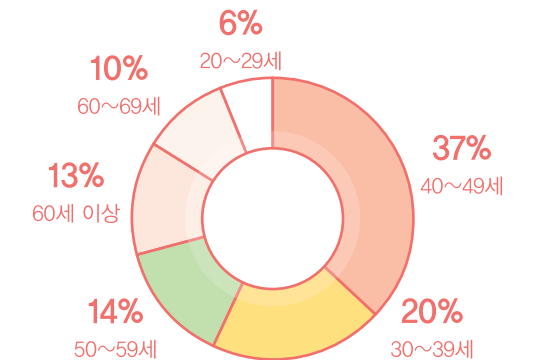
총 16단체, 335명 참여

### I. 참여자 기본 사항

1. 본 설문에 응하시는 참여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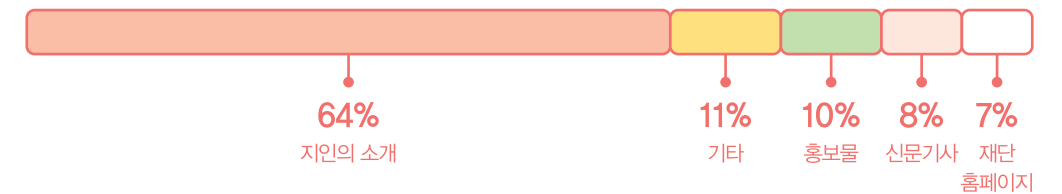


2.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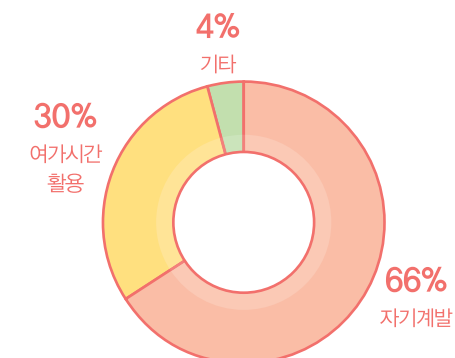


### I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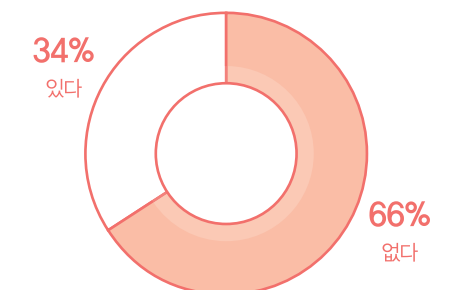
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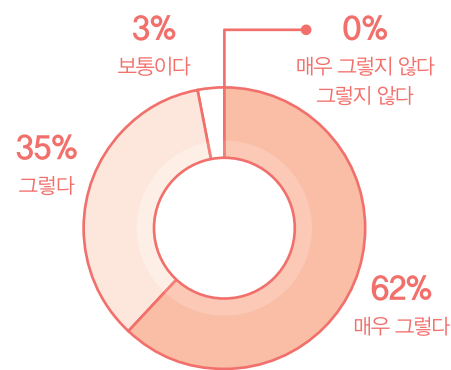


3. 이전에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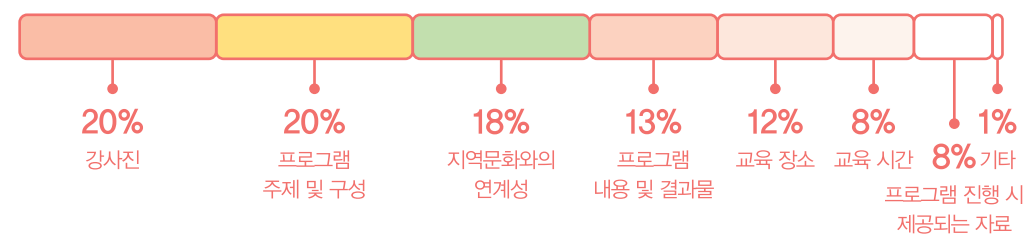


II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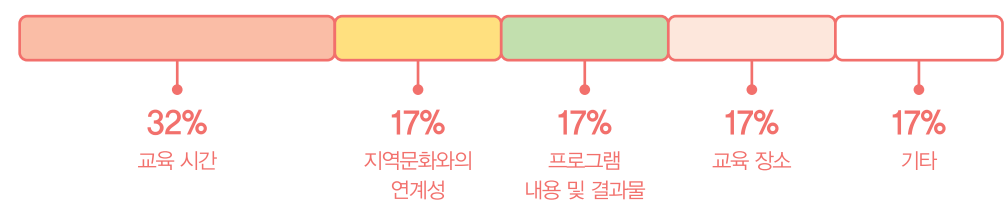
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1번 문항에 만족하시는 분은 1-1번 문항,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은 문항 1-2번 문항에 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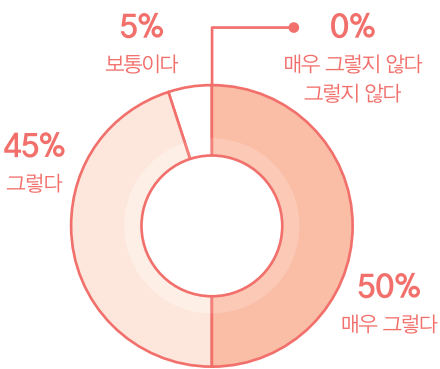
1-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 만족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어떤 점에서 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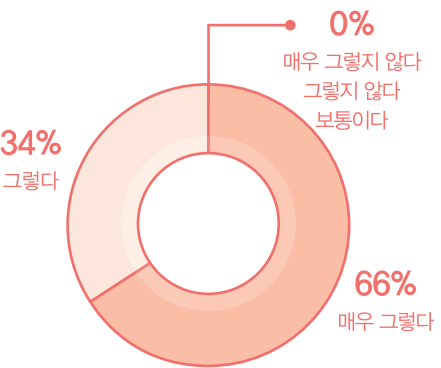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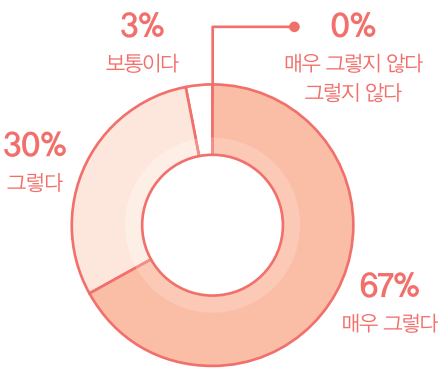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의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V.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지속여부 및 건의사항

1.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2. 주변의 지인들에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 자기계발 및 건강 증진
  - 지역행사 참여로 인한 지역민 단합과 개인의 행복 증진
- 연습시간 부족
- 다양한 분야의 체험 · 참여형 프로그램 개설 희망
  - 재단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교육 시간(저녁, 주말) 확대
  - 자생적, 지속적 지원으로 참여기회 확대

## 4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이슈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이슈

**일시**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6:00~18:00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 2

**(재)부산문화재단**

**서영수**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조형수**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이민경**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원  
**신나리**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원

**전문위원**

**김해동** (사)부산시민재단사무처장/부산시민센터장  
**이순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신미영** 행복마을 자문위원  
**장윤정** 맨발동무도서관 그림책 강사  
**오택석**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공동체활성화팀장

**2017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6개 수행단체 컨설팅 결과 공유**

**신나리**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에 대한 컨설팅 전문위원들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컨설팅 전문지표의 문제점 및 차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행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제와 연구, 지역커뮤니티라는 사업 이슈에 맞는 컨설팅위원과 단체를 서로 매칭 하였습니다.

컨설팅 전문위원들과 사전회의를 통해서 컨설팅 방향을 의논하고, 단체 교부자료와 단체 자체 평가표를 컨설팅 전문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8월~10월 동안 총 16개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 졌으며, 담당자 역시 동행하여 컨설팅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조형수** 올해 컨설팅을 지표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과 달리 컨설팅을 지표를 통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작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동지표를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컨설팅 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연구 중입니다. 올해는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평가를 지양하고 단체의 약점을 통한 예컨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행단체가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표 활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 지표의 컨설팅 지표항목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 수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자체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된 관계로 수행단체들이 사업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컨설팅 역시 일정이 뒤늦게 타이트하게 진행되어 수행단체들과 컨설팅 전문위원 간의 마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분씩 지금까지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순욱



이순욱

**이순욱**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단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단체 내부역량 강화 및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A 단체의 경우, 행정 및 운영부분에 있어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업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이 명확하였습니다. 몇몇의 단체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보다는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결합된 동아리 같은 모임으로 변질되어 결국, 단발성 사업으로 그칠까 아쉬웠습니다. 차년도에는 수행단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첫째, 사업에 지원하는 수행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교부신청 전 분야별 전문가들과 예비 수행단체들과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서 자체를 보완하고 사업방향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지표에도 있듯이 사업의 이해도와 프로그램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지역 문화예술 향유계층을 어떻게 선정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이 요구됩니다. 둘째, 컨설팅 지표 자체가 세부내용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행단체에게 지표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장윤정** 저는 도서관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하는 수행단체들을 주로 컨설팅 하였습니다. B 단체의 경우, 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성원, 활동가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도서관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C 단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력이나 내용,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을 건전한 문화소비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확산은 가능하겠지만, 단체 활동가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구성원들이 워낙 전문성을 띄고 계시는 분들이라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D 단체의 경우, C 단체와는 대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 하였습니다. 지역민들과의 화합이나 관계는 좋으나, 기존 참여자들이 단체의 주체로 성장해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획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올해는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문학적인 이해도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 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지역 문화예술 향유계층을 어떻게 선정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이 요구됩니다.

초창기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 모집, 지역과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내용 구성, 사업수행 년차에 따른 고민 등을 수행단체들 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신미영** 이번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단체들 간의 이야기, 즉 단체들 간 교차 모니터링 같은 것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창기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 모집, 지역과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내용 구성, 사업수행 년차에 따른 고민 등을 수행단체들 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 어려움도 호소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찾아가면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수** 신규단체와 3그룹 단체들과의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지속적으로 수행단체들 간의 교류의 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미영** 이어서 제가 방문했던 4곳의 단체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먼저 E 단체의 경우, 꾸준한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행단체와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F단체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00지역이 정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올해 처음 사업을 맡은 단체라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다고 하던데 다행히 수행단체와 향유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율과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수업방법론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참여자들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자세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단체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G 단체는 교육장소의 접근성은 우수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소통,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막연한 접근방식이라 아쉬웠어요. H 단체 역시 프로그램 운영 면이나 강사의 전문성은 뛰어났으나, 이주민과 지역민들 간의 정서적 이질감을 풀어내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저는 수행단체들의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만 급급하지 말고, 스스로 마을을 위한, 지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해웅** 저는 차년도에 컨설팅 보다는 사업 주체들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열정도 충만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하지만 중반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에만 급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김해웅



김해웅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열정도 충분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하지만 중반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에만 급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공급자적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공급자적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부산문화재단이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확산의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순욱** 저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사업 계획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스케치 작업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지역 동사무소, 노인정과 같이 지역 거주단체와의 사업 공유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스스로 참여자 모집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택석** 현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이 사업의 목적에 약점이 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이 결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I 단체의 경우, 수요자들의 역량이 사업주체보다 우수하게 느껴져 이에 이끌려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자원은 충분하니 사업 종료 후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잘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J 단체는 전문성은 충분하지만 사업결과물을 통한 지역과의 교류,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과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교육사업의 차이점은 재단은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지역문화예술의 교육적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센터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재 적소한 전문가, 또는 강사진을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신미영** 지역주민들도 어떤 주제에 대해 배우고 싶고, 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수행단체와 지역을 주민들과의 매칭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오택석**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면 지역 현황과 관련하여 추진배경만 작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 시설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계획서에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미호



조현수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행단체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간단하고, 개괄식으로 작성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선정 된 후, 지역 마을과 교육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힘드니, 사업의 추진배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 시설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계획서에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순욱** 네.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민경** 지역협력형이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내 기획공모의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작성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모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경우, 1년 동안 20차시를 운영하는데 상세한 지역조사에 대한 요구는 너무 소모적이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택석**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역육구 조사 정도의 성의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수** 오늘 컨설팅 위원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차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공모단계서부터, 지역특성화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인지,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지역민들과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접근에 대한 수행단체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형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번 명칭도 바뀌고 사업의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지역특성화"에 집중하여 도시재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문화재생, 문화공동체라는 영역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가들과 고민하고 있으니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부산 곳곳을 누비며 컨설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영수



조형수



**Bean**은 **Busan, Education, Arts, Network**의 조합어로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애칭입니다.

넝쿨식물 “콩”처럼 무성한 부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간의 **협동성**,  
동화 <재크와 콩나무>처럼 사람들의 무한 상상력을 이끌어 올리는 **창의성**,  
식물의 열매이자 다시금 하나의 씨앗으로 끊임없이 소생되는 **생명성**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Bean**의 정신입니다.

**생활문화본부장** 서영수  
**문화교육팀장** 조형수  
**문화교육팀원** 이민경, 박영미, 조수연, 신나리, 이재은

**발행인** 유종목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17. 12.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등록번호** 2017-027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2F  
**홈페이지** www.bscaf.or.kr  
**전화** 051-745-7281~8  
**팩스** 051-743-3553

**디자인** 에프스튜디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Copyright©2017 부산문화재단

· 본 결과자료집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7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